

잘 정돈된 불교문화유적 순례 '상생과 공존' 기조, 남북을 하나로 잇다

팔만대장경 판각1천년기념 남북합동법회 현장 - 북한 불교유적

9월5일 묘향산 보현사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 합동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단장 영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은 3일부터 7일까지 3개 사찰을 방문하는 등 알찬 일정을 소화해냈다. 3일 오전9시30분 대한항공 2851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표단은 북경공항을 경유 이날 오후4시 평양공항에 도착, 환영만찬으로 4박5일 순례일정을 시작했다. 둘째 날 북측 불교를 대표하는 조선불교도연맹 방문, 대성산 광법사 참배. 셋째 날 묘향산 하비로암 참배 및 보현사 남북불교 합동법회 등 일정 가운데 의미 있는 대화와 불교유적을 지난 2751호에 이어 다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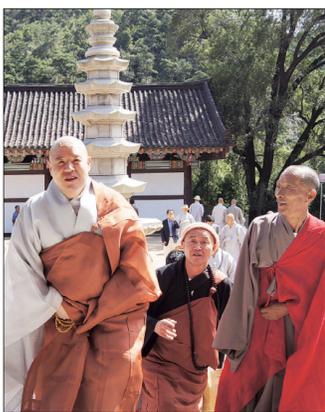
평양=김선두 기자 skkim25@ibulgyo.com



묘향산 보현사 전경. 대중들이 합동법회에 참석할 남측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대웅전 앞에 도열해있다.



대성산 광법사 전경.



평양 광법사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대웅전으로 오르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번 순례 중 가장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성지 묘향산 하비로암. 고려 말에 세워졌다는 본전과 보현대, 칠성각, 산신각이 있다.



보현사 조계문. '관서총림규정문(關西叢林糾正門)' 현판이 눈길을 끈다.



보현사 범종. 6·25 한국전쟁 중 소실된 금강산 유점사 터에서 남아 있던 것을 옮겨와 국보로 보존하고 있다. 7.2톤으로 146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현사 팔만대장경보존고의 유물.



보현사 다리니 석당.



하비로암의 호랑이 벽화.

특별 기고

“불교지도자 대장경 천년법회 남북관계 해빙...국민에 희망”

지난 9월 5일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고불법회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되었다. 필자는 이웃종교의 대표자격으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며 어느 날엔가 우리 기독교의 그런 행사에도 이웃종교의 대표가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대장경 판각 1000년 - 분명 불교의 큰 자라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적 의미가 있다하겠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조상들은 외국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온 정성을 다하여 대장경을 판각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란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존해왔으니 그 놀라운 정신과 지혜와 정성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이번 고불법회가 북한에서 열렸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극히 위축되어서 상호원래조차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공공 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불교 지도자들이 대거 방북하므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될 단초가 되었고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모처럼 큰 희망을 주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도 기대를 거는 그런 의미 깊은 일을 불교가 이루어 낸 것이다.

그 옛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았던 대장경을 중심으로 이번에 남북이 함께 만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니 분명 이 일을 계기로 민족의 분단이 극복되고 겨레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종교를 넘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이다. 사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실용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남북문제를 실용적으로 하면 획기적 협력 발전이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이며 남북관계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 놓였으며 이대로 이 정권이 끝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남북관계의 해결을 '포괄적 해결(그랜드 바겐)'을 내세우며 선(先) 정상회담 후(後) 모든 분야의 협력을 고수해오는 바, 그렇다면 아무 조건 없이 한사라도 빨리 정상회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과를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의 냉엄한 역사적 현실이 사과문제로 남북관계를 지체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바라기는 이번 불교 지도자들의 역사적 방북과 뜻 깊은 남북합동 고불법회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큰 민족역사의 분기점이 되기를 발원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보현사 팔만대장경보존고에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발원하며 서 계신 큰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새삼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나 같은 이웃 종교인을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신 불가의 넉넉함에 감사드린다.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천안함 사태, 5·24 조치로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 트다

남북 참가자들은 9월5일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남북 참가자들은 고불문(告佛文)과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내용은 2010년 1월 합의한 대로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 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팔만대장경목판 제작 1000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협력해나감에,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등 3개 항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방북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해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를 내놓은 뒤 처음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 재개에 물꼬를 텃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대북 신규투자자를 불허하고 개성공단 외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는 것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상의 남북교류 전면 중단선언이었다. 5.24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몇 차례 승인돼 왔었다. 하지만 문화행사 등 교류 행사에 대한 방북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북으로 5·24 조치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수해지역이나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방북을 엄격히 금지해온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정부가 류우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즈음해 대북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정부는 5·24 조치를 지키면서도 인도적 지원, 종교 부문 위주로 남북교류를 열어주며 대화 국면으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대표단의 이번 방북이 고려대장경이라는 민족유산에 매개로 한 문화교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불교계가 주도하는 민간 대화체널의 복원을 통해 민족유산을 보존하고 발양시키는 사업은 비정치적이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윤택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조계종 대표단의 방북이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깜짝 이벤트가 아닌, 준비된 방북이 성과를 거두는 것은 자명하다. 자승스님은 취임 후 3개월 뒤인 2010년 1월 말 북한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신계사 참배 활성화, 평양 용화사 공동복원, 남북 주요사찰 자매결연, 대장경 1000년 축전 초청, 평양 시내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 등의 5가지 합의사항이 나왔다. 지난 해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번 방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번 합동법회 봉행사에서 "대장경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팍 막혀 있을 때, 물꼬를 트는 역할을 불교도가 해야 하듯이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도 불교도가 용맹정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南北 의미 있는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북한에서 초청하면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북측에서 봉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남측에서도 심상진 조선 불교도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승인이 나면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기념 통일기원 남북불교 합동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4일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좌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내년 봉축법회 상호 초청 승인되는 쪽이 방문해 봉행

총무원장 스님은 5·24조치이후 처음으로 허용한 이번 조계종의 방북이 곧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며 "남과 북의 불교가 서로 믿고 끊임없이 협력 교감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종교인이(남북문제를)정치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문화 교류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초청하고 조불련도 우리를 초청해"

달라. 승인되는 쪽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진 위원장은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의의가 있다"는 표현으로 공감을 표했다.

심상진 위원장은 북측의 현실은 6·15 선언의 실행여부가 관건임을 시사하면서 말을 이어 갔다. 심상진 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적 인사가 당선되는 것이 중"

요하다"며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이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스님은 "너무 진보로만 가도 좋지 않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일 잘하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화제를 다시 불교 쪽으로 돌렸다.

한편 이 자리에서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 최근 108산사 순례를 통한 '북한돕기 쌀 모으기 운동' 사실을 설명하면서 보현사 등 북한사찰 순례 의사를 설명하자 심상진 위원장은 108산사 순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